

## 편법 유급보좌관제 재추진 광주시의회 예산 요구 논란

### 광주시 곤혹... 시민단체 "혈세 투입 안돼"

광주시의회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유급 보좌관을 도입하기 위해 광주시 에 수역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도입하려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유급 보좌관제도를 사실상 재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5면>

28일 광주시의회는 "2011년 본예산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 4300만원을 편성해 줄 것을 광주시 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예산을 마련해준 광주발전연구원에 '광주시 의회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 도화 방안 연구(이하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발전연구원이 28명의 시의원 보좌관을 임시 연구원 으로 채용하면 이들을 의원사무실에 파견 근무 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개인 보좌관을 두기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한 셈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6억4300만원

가운데 인건비가 4억5800만원, 기타 경비가 1억56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임시연구원은 연봉 1500만원에 4대 보험에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선 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2007년부터 '의정발전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의원 보좌관을 운영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본뜬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요구 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문의하 고 지역 여론을 살피고 있으나 매우 부정적이어서 곤혹스럽다"며 "지방 의원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해당 위원 회에 계류중인 만큼 법 개정 이후 적 법하게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지역시민단체들은 시의원들이 의 정비 유급화 이후 매년 4855만원의 세비를 받고 있는 만큼 그 테두리 안 에서 의정비를 사용해야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시의원 보좌관을 편법으 로 운영하는게 추가로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만일 보좌관이 편법으로 운영하면 의원 1인당 7000만원 안팎의 세비를 받게 되는 셈"이라며 "별도의 직업이 있는 시의원들에게는 과도한 지원이라는 비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은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보좌관 풀(Pool)을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의원 당 1명씩 보좌관을 두겠다는 것은 정책개발 보다는 개인 비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며 "제6대 의회 첫 해 부터 편법으로 유급보좌관을 두겠다는 무리이며, 의원들이 먼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뒤 유급보좌관제 도에 대한 시민동의를 얻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방대한 광역 자치단체의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의원들이 사적으로 매달 200만원의 비 용을 써가며 보좌관을 고용하고 있다"며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좌관이 필요해 예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현석·최권일기자 chadol@



### G20 대비 해상훈련

28일 목포시 총무동 고하도 앞바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대비 불법 조업어선 단속 및 나포 시범훈련'에 참여한 목포해 경 소속 경찰관들이 보트를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에워싸며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황기조 중=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소속 기장 김진홍·부기장 이상호) /목포=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텃밭 참패 민주당 대개혁 시험대에

### "공천 쇄신없인 향후 총선·대선서도 필패"

민주당이 '심장부'이자 '텃밭'으로 여겨온 광주에서 최근 두 차례 재·보 선 결과 고전 또는 참패하면서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은 지난 7·28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장병완 의원이 비민주당 야 4당 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오병 운 후보에게 고전한 데 이어 지난 27 일 서구청장 재선거에서는 김선옥 후 보가 24.03%의 지지율로 3위에 그쳐 는 초라한 성적을 냈다. 이는 당내에

서 충격이자 핵심 지지기반 균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두 차례의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당 지도 부 등 스타급 정치인들이 총출동해 지원유세를 벌였지만, 3위까지 밀리 는 수모를 당했다.

이는 민주당의 오만에서 빚어진 결 과였다는 게 지역민들의 공통된 여론 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후 보를 또 다시 공천한 것은 지역민심 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오만한 태

도라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를 표로 응징했다. 광주·전남은 더 이상 '민주당 텃밭'이 아니었고,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 선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음을 여실히 반증했다.

앞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무 소속 후보들이 대거 약진한 점을 감안 하면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은 사실상 지방선거때부터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민심의 심판을 교훈 삼아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도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히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는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야권연합 논의의 서두르고 더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쇄신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한 당원은 "민주당 지도부 가 총동원된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 게 패한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하며, 당 을 조속히 개혁체제로 돌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 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 및 공직 자들은 현재보다 몇 배 더 민심 속으 로 들어가고, 개혁적 인사와 생활운 동가들이 공직 후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핵심당원인 이모 씨는 "서구청장 패배의 1차적인 원인 인 공천 잘못이 향후 선거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천에 참여한 사람은 정 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풍토를 마련해 야 한다"며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 2 명은 당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영산강하구둑 개방 공사 착수

### 수문 5개 추가 설치 폭 480m로 확대

최근 영암에서 열린 '포틀러 원(F1) 코리아그랑프리'가 끝남에 따라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1공구 사업 이 본격화했다.

28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 단(단장 장병식)에 따르면 'F1 대회' 교통체증을 우려해 임시중단했던 임 시 물막이 공사에 착수했다.

영산강사업단은 연말까지 차량을 우회시키는 680m 길이의 임시 물막 이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초 하구둑 을 철고 배수갑문 시설을 추가 설치 해 오는 2012년 말 완료할 예정이다.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1공구 사업 은 영산강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비 2221억원을 들여 기존 240m 길이의 배수갑문을 48m×13.6

m 크기의 수문 5개를 추가 설치해 480m로 넓히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 되면 홍수배제량은 초당 5260m<sup>3</sup>로 높 아진다.

또한 기존 '통선문식 여도' 대신 용 어 뱃잠이 처어 등 회유성 어류를 위 한 '자연형 수로식 여도'(27ha)가 조성 되며, 영산호 랜드마크로 58m 높이의 전망대와 관찰데크 등이 세워진다.

당초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계획 가운데 '영산강 수질 개선'과 '목 포항 인근 오염' 주장이 수개월째 팽 팽해 왔던 '저층수 배제시설'은 지 난 6월 백지화했다.

영산강 구조개선 1공구 사업과 함 께 영암호 배수갑문을 확장(80→410 m)하는 2공구 사업과 영암호~영산

호간 연락수로를 확장(15→140m)하 는 3공구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최근 전남도의 건의에 따라 대형 유람선이나 요트가 다닐 수 있도록 기존 폭 6m의 영산강 하구둑 통선문(通船門: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을 20~40m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영산강사업단 관계자는 "전남도의 건의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통선문 확 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통보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강하구둑은 지난 1981년 목포시 옥암동과 영암군 삼호읍 사이 (총 연장 4.35km)에 준공된 목으로 2 억5000만 원의 물을 담수, 영산강유역 의 홍수 및 가뭄방지에 기여해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圖可圖非常圖

<디자인이라 부르는 것이 다 디자인은 아니다>

### 내년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 발표

#### 국내외 건축가들 도심 10곳에 조형물 건립도

내년에 열리는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2일~10월23일) 기간에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 등 국내외 유명 건축가 10 명이 광주 도심 곳곳에 건축조형물을 세운다. <관련기사 13면>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28일 광주비

엔날레 전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 및 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는 '도 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Design is design is not design)로 정해졌다. 이 주제는 우리가 '디자인이라 부르는

것이 다 디자인은 아니다'는 뜻을 담 고 있다. 디자인 흉수 속에서 새로운 디자인 환경을 분석하고 모색한다는 의미다.

전시장은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과 일반인의 작품이 어우러진 '디자인 도시'로 꾸며지며, 우리 삶 속의 다양 한 디자인을 도심을 거닐 듯 감상할 수 있게 설계한다.

또 세계 3대 건축가로 손꼽히는 도미니크 페로 등 건축가들이 광주 을 성 터 인근의 버스정류장, 하수구, 건 물 사이의 공간 10곳에 이색 조형물 을 세우는 '폴리 프로젝트'(Folly Project)도 함께 진행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엘 시스템아' 창시자 아브레우 박사 특별 인터뷰 ▶12면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약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HAPPINESS COUNTRY CLUB  
www.happine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VIP 1차정회원  
분양예정  
(3억5,000만원)

## 해피 정회원 모집

- 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 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 모집인원: 100명
- 분양금액: 1억

- 정회원 특전
  1. 공동: 정회원 그린피 면제 /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2. 선택: A형, B형 중 택일
    - A형: 지정회원(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인 준회원대우,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할인혜택 (10% 전후)
    - B형: 지정회원 미신청시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우대혜택 (20% 전후)

- 입회금 납부안내
  1. 계약금 20% 납입 후 30일 이내 잔금완납 (단위: 만원)

구 분	입회금액	납입 방법	
		계약금	잔 금
해피정회원	10,000	2,000	8,000

- 2. 납입계좌
  - 광주은행 001-127-012066 / 예금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가능)

가입문의 Tel. 061-330-5001~5 Fax. 061-330-5009